

2015 회계연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

[2014. 7. 18]

뉴델리사무소

1. 최근 인도 경제 개관

□ 신정부 출범 과제 (재정적자, 고물가, 성장률 둔화)

- (재정적자) 국가신용등급을 좌우하는 요소임.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한 세수 증가 및 재정지출의 효율화 노력 필요.
- (고물가 지속) 식료품(양파, 감자 등) 물가 안정이 최우선. 최저 수출가격제 및 사재기 적극 단속 실시.
- (성장률 둔화) 제조업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생산 HUB로 변화 모색

□ 투자, 국민저축 지속 감소

- 산업생산증가율은 최근 지속 감소하여, 2014회계연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0.1% 감소하였음.
- 저축률도 2008회계연도에 최고치(36.8%)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4회계연도에는 30.5%를 기록함.

□ 예산안 발표 전, 시장 기대감 상승

- 2015회계연도 1분기('14. 4월~6월) 기업신뢰도지수가 전분기(49.9) 대비 상승한 53.7을 보이는 등 기업들이 가까운 장래에 대한 낙관적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됨.

2.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내용

□ 효율적인 정부 지출 노력

- 비계획지출은 9.4% 증가한 반면, 계획지출은 20.9% 증가
 - 계획지출 : 도로, 스마트 도시, 농업, 에너지 등 프로젝트 투자 및 주별 지원금 확대(주별 재정자립도 확충 목표)
 - 비계획지출 : 이자지급, 공무원 급여, 국방비, 연금, 보조금 등
- 보조금 : 감소 예상과 달리 2% 증가한 2조 6천억 루피 책정
 - 재정건전화의 최대 장애요인이나, 서민층의 반발 및 선거지지율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됨. 향후 신정부는 GDP 2% 이내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- 지출계획을 위한 Expenditure Management Commission 설립
 - 농업 부문 지출
 - : 기술혁신(4% 성장 목표), 관개시설 투자(천수답 개선 100억 루피), 농업경쟁력 강화(농업대학, 원예대학 신설)
 - MSME(중소기업) 육성
 - : 인도 경제의 고용 및 생산의 주역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,000억 루피 펀드 조성
 - 기타 부문
 - : 식수 안정성 제고(360억 루피), '19년까지 모든 가구 화장실 설치, 도시빈곤층 저리 융자(400억 루피) 등

□ 세입 확충 노력

- 공기업 주식 매각 목표 확대 (목표 : 5,842억 루피)
 - 1992회계연도에 첫 도입한 공기업주식 매각은, 금번 예산안 중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의 관건임.
 - 매각 대상은 ONGC, SAIL 등의 공기업으로,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활황인 경우 매각작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나, 공기업 노조의 반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.

□ 해외직접투자(FDI) 관련 규제 완화

- FDI 지분 한도, 철도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 관련 조건 완화
 - 방위산업, 보험산업에 대한 FDI 한도를 기존 26%에서 49%로 확대*하였음.
 - * 다만, FIPB(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) 건별 승인 필요
 - 철도 인프라 개방 : 고속철도 건설 소요자금 충당을 위해, 운영을 제외한 건설 부문에 FDI를 허용
 - 부동산 개발 관련 FDI 조건 중 최소건평을 기존 5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, 최소자본을 1천만달러에서 5백만달러로 축소하여 투자 유입을 촉진함.

3. 예산안에 따른 산업별 영향

□ 건설산업,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호재

- 도로건설
 - 국가고속도로관리국(NHAI) : 3,788억 루피 배정
 - 산업회랑, 농촌지역 도로연계성 강화

- 신 항구/공항 건설

- 주별 제 1도시, 제 2도시에 신공항 건설(PPP 방식)
- 16개 신항구 건설

- 스마트 시티 건설

- 대도시 주변 100개 위성도시 건설 (총 706억 루피 투자)
- 동 도시 개발을 위해 부동산 관련 FDI 허용조건 등 규제완화

- 기타 부분

- 내륙수로개발 1,620km (갠지스강 개발, 420억 루피)
- 동 도시 개발을 위해 부동산 관련 FDI 허용조건 등 규제완화

□ 섬유산업 발전 기대,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긍정적

- 섬유산업

- 전통 베틀 제품 개발 및 촉진을 위한, 통상촉진센터 및 Craft Museum 건립 (5억 루피)
- 6개 주에 “Textile Mega-Clusters” 건립 (20억 루피)

- 신재생 에너지산업

- 태양광/풍력 기자재 수입 시 면세 혜택 기간 연장(17. 3월말까지)
- Ultra Mega Solar Projects 실시 : 라자스탄, 구자라트, 타밀나두, 라다크 등 50억 루피 지원

- 철강산업

- 인도 내 철강사 보호를 위한 관세 인상, 수입억제 정책 강화
- 가스파이프라인 건설(15,000km) 등 인프라 관련 투자 확대
철강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- 자동차산업

- 구체적인 성장 장려책은 없으나, 인프라 투자 확대, 직접세 경감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등으로 수요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간접효과 기대
- 자동차 소비세 인하를 '14년말 까지 연장한 것도 수요 회복 분위기에 긍정적임.

4. 예산안 관련 외부 평가

□ 투자확대 및 성장기반 구축 노력,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부족

- S&P : 당분간 신용등급 불변 예상. 향후 정책 실행 모니터링. 재정 적자 4.1% 달성 여부가 관건이라고 판단.
- Moody's : 고도성장 방안 제시는 바람직하나, 구체적인 실행전략 미흡